백세사회 가족생활전망과 가족정책에의 함의점

이 현 아(서울대학교 연구교수) · 조 희 금(대구대학교 교수) · 김 선 미(광주대학교 교수)
이 승 미(우석대학교 교수) · 성 미 애(방송대학교 교수) · 진 미 정(서울대학교 교수)

Ⅰ. 서론

평균수명의 증가는 개인적으로는 장수를 의미하고, 사회적으로는 고령화를 의미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2020년 81.45세이며 2030년에는 83.13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통계청, 2007). 통계청이 발표한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11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100세 이상 고령자는 1,836명으로 2005년의 961명보다 91% 증가하였다(통계청, 2012). 현재 우리나라의 최빈 사망 연령대는 80대 중후반인데, 이러한 장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최빈 사망연령이 90대로 높아져 점차 100세까지의 초장수를 누리는 사람의 수와 비중이 높아지는 100세 사회가 되는 것도 멀지 않았다(김용하, 2011). 노년기가 연장되다보니 노년기를 노인전기(65-75세), 노인중기(76-85세), 노인후기(86세 이후)로 구분하여 연소노인, 중고령노인, 최고령노인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100세 사회는 단순히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수준의 대응이 아니라, 전반적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사회제도, 규범, 통합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큰 도전을 불러일으킨다. 학자들은 이를 뉴 노멀(New Normal) 관점에서의 재해석이라고 한다(이수영, 2011). 뉴 노멀이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새로 떠오르는 기준이나 표준을 의미하며,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조선일보 위클리비즈, 2010년 3월). 원래 뉴 노멀은 저성장과 저소비 등의 경제위기를 설명하는 용어이지만,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신 사회위험을 설명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출산율의 하락을 비정상으로 보고 이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은 '뉴 노멀'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회귀적인 접근이다. 오히려 낮은 출산률을 새로운 표준으로 보고 이에 맞춰 사회구조와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뉴 노멀'의 접근이다.

가족의 관점에서 보면, 100세 사회는 가족의 구조와 기능 등 가족체계의 총체적인 변화를 야기한다. 세대관계가 길어지면서 세대 수 자체는 증가하지만 동 세대에 포함되는 가족원의 수는 감소하여 콩깍지같이 긴 가족관계가 형성된다(Bengtson, Rosenthal, & Burton, 1990). 세대관계가 장기화되면 세대 간 교환의 형태나 빈도도 영향을 받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100세 사회는 세대관계 뿐 아니라 부부관계를 장기화시킨다. 동시에 이혼의 장벽이 되는 자녀수가 감소하므로 부부관계의 해체 가능성도 증가한다. 이러한 가족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 성찰과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특히 가족주의 전통이 강한 한국 사회가 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형태의 가족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는지, 또 이러한 가족 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한 연구와 이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100세 사회를 전망하는 연구들은 주로 전문가들의 통찰에 근거하여 고령화라는 메가트렌드가 사회 전반, 즉 산업, 고용구조, 자산시장, 의료서비스, 사회통합, 복지정책 등에 미칠 거시적 영향들에 주목해왔다(예를 들어, 이삼식 외, 2011. 인생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연구). 100세 사회의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연구들이 없지는 않지만, 이러한 연구들도 결국 가족이라는 렌즈를 통해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 것인가를 전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예를 들어, 강홍렬 외. 2006. 정보화로 인한 가족관계와 가족역할의 미래변화 총괄보고서; 장혜경 외, 2011.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 정책 전망 Ⅰ). 강홍렬 외(2006)에서는 정보화 사회의 현상으로 인해 가족이 제도가 아니라 라이프스타일로서 존재하게 되고, 가사산업이 확장되면서 탈가족화되고, 정보사회의 불평등구조가 가족의 양극화를 초래하며, 가정과 일터가 융합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장혜경 외(2011)의 미래 가족 전망 연구에 따르면, 20세 이상 70세 미만 응답자들은 2030년 경 이혼율, 남녀평등, 이주노동자 수, 청년실업, 자원의 고갈, 신기술개발, 우주개발 등의 현상이 강화 또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이렇게 가족변화를 통해 사회변화를 전망하는 연구들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100세 사회의 가족생활 변화가 가족구성원들과 우리의 일상적 상호작용에 미칠 미시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거시적 전망이 제시하는 큰 그림에서는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현상들이 생략되거나 간과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100세 사회에 대한 전망을 하되, 향후 10~20년 사이에 100세 사회를 경험할 50대와 60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이들의 주관적 인식을 알아보는 방식을 취하였다. 100세 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주관적인 전망을 알아 본 연구들은 별로 없지만 노년기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살펴 본 연구들은 적지 않다. 노년기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고령화 추세와 관련해서 개인의 인식(예: 성공적 노화, 우울, 심리적 안녕감, 생활만족도, 자살 충동 등), 가족관계(예: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손자녀관계 등) 등 장기화된 노년기를 노인 개인은 어떻게 인식하며, 가족관계에는 어떤 변화를 주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옥선화, 장경섭, 최연실, 성미애, 진미정, 이재림, 강은영, 2011).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맥을 같이 하되 가족의 관점에서 수명의 증가가 단기, 중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정책적 함의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생)를 포함한 현재 50대, 60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였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100세 사회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베이비붐세대는 수적인 비중 외에도 사회경제적 특성이 과거 노인세대와 다르다는 점에서 도래할 100세 사회를 전망할 때 주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이성호, 2012). 특히 2010년부터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2020년부터는 노인세대로 진입함으로써 향후 10-20년 사이에 우리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가족생활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필요성과 더불어 사회적으로는 가족정책의 외연을 넓혀야 할 필요성을 야기한다. 이에 본 연구는 100세 사회 가족생활의 변화에 대해 전망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족정책에의 함의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FGI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의 50대, 60대 연령층 남녀 각 400명씩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의 적합성 검토를 위해 2012년 7월 5일부터 10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 완성하여 전문 조사회사를 통해 2012년 7월 23일부터 8월 17일까지 본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60%는 서울 거주, 40%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조사하되, 서울을 4개 지역(북동, 북서, 남동, 남서), 경기도를 5개 지역(북부, 서남부, 남부, 서부, 동부)으로 구분하여 할당표집하였다.

설문문항은 가족 '관계'와 '기능'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총 22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절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4)'까지의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관계'기준에 따라 가족관계를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지역사회관계로 나누었고, 부모자녀관계는 다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과 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원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전체 4가지 관계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기능'기준에 따라 가족기능을 도구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으로 나누었다. 도구적 기능은 경제적 지원, 신체적 지원, 가사분담을 포함하는 것이고, 정서적 기능은 정서적 지원이나 여가공유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신체적 지원은 가족원이 아플 경우 간병, 집안일, 외출동반 등의 신체적 돌봄이나 손자녀 돌봄을 포함하는 것이고, 경제적 지원은 정기적, 부정기적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유산상속까지 포함하였다. 정서적 지원은 전반적인 정서적 의지 뿐 아니라 전화, 방문, 대화 등 구체적인 정서 지원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다. 여가공유 또한 정서적 기능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 행위로 여행이나 쇼핑, 외식 등을 포함하여 질문하였다. 그 외 관계의 상대적 중요도를 묻는 질문과 가족과의 동거 선호도를 묻는 질문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녀의 비율은 50%로 같고, 연령대 역시 50대와 60대가 50%로 동일하다. 취업중인 사람은 68%이고 비취업은 32%이다. 가구소득분포는 300만원 미만이 28.4%, 300~500만원미만이 34.1%, 500만원 이상이 37.5%를 차지한다.

FGI 집단면접은 40대~60대를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경우, 조사 규모 상의 제약으로 연령집단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집단면접에서는 남녀 모두 40대까지 범위를 넓혀서 조사한 것이다. 집단면접은 40대 여성 1팀, 50대 여성 1팀, 60대 여성 1팀과, 40-50대 남성 2팀을 대상으로 하였고, 100세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느낌과 생각, 노년기 생활에 대한 전망, 가족관계에 대한 전망 등의 내용을 가지고 각각 2시간 정도 진행하였다. 집단면접에서는 설문조사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주관적인 인식과 기대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100세 사회의 가족생활 전망을 위해 100세 사회에 대한 개념, 예상 시기, 100세 사회 가족의 모습(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가족정책에의 요구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취하여 문서로 자료화하였다. 전사된 면접 자료를 통해 주요 중심 주제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100세 사회 가족생활을 전망하고 가족정책에의 함의점을 도출하였다.

<표 1> FGI 참여자 특성

	이름(나이)	직업	거주지	가족구성	기타
40대 여성	A-1(48세)	주부	서울시 송파구	부(78세) 모(72세) 시부(88세) 남편(55세) 딸(24세) 딸(18세)	시모 사망
	A-2(44세)	주부	서울시 송파구	부(75세) 모(68세) 시부(79세) 시모(75세) 남편(48세) 딸(17세)	-
	A-3(46세)	사업	서울시 송파구	부(77세)/모(76세) 시모(76세) 딸(17세) 아들(12세)	시부 사망
	A-4(48세)	주부	서울시 송파구	친모(80세) 남편(52세) 딸(23세) 아들(18세)	친부·시부모 사망
50대 여성	B-1(59세)	주부	경기도 용인시	친모(79세) 모(84세) 남편(63세) 아들(35세) 아들(33세)	친부·시부 사망
	B-2(56세)	주부	경기도 용인시	친모(75세) 시모(88세) 남편(58세) 아들(32세) 아들(28세)	친부·시부 사망
	B-3(51세)	주부	경기도 일산시	시부(90세) 시모(88세) 남편(54세) 딸(26세) 딸(24세)	친부모 사망
	B-4(57세)	주부	서울시 강서구	친부(86세) 친모(85세) 남편(67세) 딸(34세)아들(32세)	시부모 사망
60대 여성	C-1(63세)	회사원	서울시 강동구	친부(94세) 친모(84세) 시모(92세) 남편(70세) 아들(35세) 아들(33세)	시부 사망
	C-2(64세)	회사원	서울시 성동구	시모(94세) 남편(65세) 아들(37세) 딸(36세)	친부모·시부 사망
	C-3(64세)	회사원	서울시 광진구	남편(65세) 아들(30대) 아들(30대)	친부모·시부모 사망
	C-4(62세)	회사원	경기도 파주시	딸(40세) 딸(38세) 아들(36세)	친부모·시부모·남편 사망
	C-5(64세)	회사원	경기도 양평군	시모(89세) 남편(66세) 아들(38세) 아들(37세)	친부모·시부 사망
40·50대 남성 생산직근로자	D-1(51세)	생산직 근로자	광주시 남구	장모(91세) 부인(47세) 아들(18세) 쌍둥이아들 (16세)	친부모·장인 사망
	D-2(54세)	생산직 근로자	광주시 광산구	친모(78세) 부인(49세) 아들(24세) 딸(20세)	친부·장인장모 사망
	D-3(44세)	생산직 근로자	광주시 광산구		-
	D-4(48세)	생산직 근로자	광주시 광산구	친모(72세) 장인(68세) 부인(45세) 아들(21세) 딸(17세)	친부·장모 사망
50대 남성 자영업자	E-1(51세)	회사	서울시 도봉구	친모(76세) 장인(83세) 부인(50세) 딸(19세)	친부·장모 사망
	E-2(51세)	자영업	서울시 도봉구	딸(22세)	친부모·장인장모·부인 사망
	E-3(50세)	자영업	서울시 도봉구	부인(49세) 딸(18세) 딸(16세) 아들(13세)	친부모·장인장모 사망
	E-4(51세)	자영업	서울시 도봉구	친부(86세) 장모(75세) 부인(47세) 아들(22세) 아들(19세)	친모·장인 사망

Ⅲ. 선행연구 고찰

1. 100세 사회 정의와 관점

최근 우리사회는 고령화문제를 예전의 노인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와 다양한 사회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다 거시적이고 광범위한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의하면 최빈사망연령이 90대가 되는 시점을 '100세 시대'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대수명이 아닌 최빈사망연령을 100세 시대의 기준지표로 선정한 것은 기대수명은 유아 및 청년 사망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반면, 최빈사망연령은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한 연령을 지칭하여 평균적인 100세 사회의 도래를 보여주기에 적합한 지표이기 때문이다(전홍택 외, 2011).

현재 우리나라 최빈사망연령대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의 추이가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경우 한국 여성의 경우 2020년까지는 최빈사망연령이 90대를 넘어 100세를 바라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90세 이상 사망통계가 확보되면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최빈사망연령 90대 진입은 2020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의 남녀를 합친 최빈사망연령의 추이를 살펴보아도 1990년도 초반 이후 매년 1년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대략 2020~2025년에는 100세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수영, 2011).

그러나 인생 100세 사회는 모두가 처음 접하는 상황이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혼란을 동반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의 인생 100세 시대 대응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1,000명(30~69세) 중 40%가 100세 인생을 축복이 아닌 것으로 응답함으로써 100세 인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부정적 부담감을 크게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100세 사회란 100세 장수가 보편화되는 시대를 말하며, 100세 고령자집단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를 사는 모든 세대를 포괄하는 것으로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모든 연령대의 사회구성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애계획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고령화 사회로 진전하면서 그 영향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팽배하다. '인구의 시한폭탄(demographic time bomb)', '인구 지진(population earthquake)', '고령화 충격(aging shock)'이라는 말로 표현할 정도로 고령화를 인류 발전에 위협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최성재(2011)는 이러한 부정적 주장들이 ① 경제적 위기와 복지국가 프로그램 확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문제가 나타나면서 노인인구가 사회적 자원을 소진시키는 가장 큰 인구집단이라는 희생양이 된 점, ② 개인 고령화가 빈곤, 외로움, 질병, 무위의 부정적 모습과 연계되어 그런 모습의 노인인구가 대량으로 존재할 것에 대한 두려움, ③ 노화과정의 지연과 예방이 상당정도 가능한 과학적 연구결과를 무시한 점, ④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비과학적 편견과 고정관념에 근거한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우리사회가 맞이하게 될 고령화 사회는 이러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연령통합적 사회체계 모형'에 근거하는데, 이는 모든 연령층이나 모든 세대를 사회체계 속에 참여시키는 한편

생애과정을 통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 노년기에도 생산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수용하여 노인의 생산성 발휘의 능력에 따라 적합한 역할을 부여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의 100세 사회 연구에서는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활기차고 준비된 장수사회를 목표로 하여, 모든 사람들이 보람과 품격을 갖춘 삶을 살 권리에서 출발하면서도 고비용 장수사회가 아닌 적정 비용 장수사회를 지향하고자 한다. 즉 '활기차고 준비된 장수사회'를 목표로 정부 주도형 대안을 넘어 모든 사회 계층 및 세대가 참여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전홍택 외, 2011).

이와 같이 100세 사회는 고령자를 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보편적・시혜적 복지가 아닌 개인의 노력이 전제된 선택적・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며, 고령자 등 특정 세대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하는 문제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고령화 사회'와 구별되며, 이런 점에서 새로운 사회표준을 만든다는 적극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의 고령화 사회와 100세 사회의 차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고령화 사회와 100세 사회의 패러다임 비교

구분	고령화 사회	100세 사회
인식	사회적 부담 대체의 대상	사회적 자원 재출발의 주체
복지론	보편적, 시혜적 무상복지 무한국가 책임	선택적, 생산적 유상복지 개인 노력이 전제된 국가책임
고령자모습	경제, 사회활동을 중단하고 소일거리로 죽음을 준비 사회로부터 일방적으로 보호	경제, 사회활동을 통한 제2의 인생 시작 사회에 기여하고 보호받음
정책대응	방어적, 소극적 대응 혜택축소 등을 통한 복지공급조절	적극적 대응 교육, 근로 등 고령자자활을 통한 복지수요 조절

(출처: 이수영(2011).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2. 100세 사회의 가족생활전망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가 가족생활과 가족 돌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현재 노년기나 중년기(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생애과정과 가족생활을 살펴보면서 100세 사회의 가족생활과 가족 돌봄을 진단하거나 전망한다. 그런데 현재 노년기 세대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현재 중년기 세대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향후 10~20년 사이에 도래할 100세 사회를 전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여기서는 현재 중년기 세대 혹은 베이비부머들에 대한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먼저 한경혜, 최현자, 은기수, 이정화, 주소현, 김주현(2011)의 한국 베이비부머 연구를 통해 이들의 생애과정을 살펴보면, 여성들은 평균 25세에 결혼했고 결혼한 지 약 1년 후 첫아이를 낳았다. 평균 자녀는 2명(1.92명) 정도 이며, 첫째를 출산하고 막내를 출산하기까지 3년 내외가

소요되었으며 연령으로는 30세 내외가 된다. 30대 중반에 첫째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40대 초반에는 중학생, 40대 중반에는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두게 되었다. 이 여성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자녀를 적게 출산해 자녀 출산기가 부모 세대에 비해 약 1/3로 축소되었고 자녀 양육기도 짧아졌다. 평균 수명이 길러지면서 자녀 독립 후 부부만 생활하는 빈둥우리 시기가 19.4년으로 부모 세대의 1.4년에 비해 무려 14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에 따르면 부부관계가 빈둥우리 시기 이후 노년기의 생활에서 차지하게 될 비중과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 가족에서는 부부관계보다 부모자녀관계가 더 핵심적인 위상을 차지하며 부모 자녀 간의 동일시나 일체감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로서의 역할 보다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우선시하게 되고, 자녀교육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역할을 우선시하던 부부가 노년기에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감소하게 되면 부부관계의 부적응이나 상호 소외감을 경험하기 쉽다. 그러나 오랜 기간을 통해 쌓아 온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부부관계를 다시 정립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이순미, 김혜경, 2009, 김혜경 외. 2011에서 재인용).

노년기의 세대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노년기에도 부모자녀관계가 단절되거나 노인들이 가족관계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OECD의 2030년 가족의 미래 보고서(OECD International Futures Programme, 2008)에서도 보고하듯이 세대 간 유대는 놀라울 정도의 강도와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 노년기의 세대관계에 대한 서구의 연구들은 예상과는 다르게 산업화와 핵가족화가 노인세대의 고립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세대 간 접촉 빈도와 다양한 교환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한경혜, 이정화, 2012). 세대 간의 교환은 주로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정경희 외, 2012)에 따르면, 65세 이하 노인의 70%가 비동거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61.4%가 비동거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주고 있다. 도구적 지원을 받는 경우는 46.1%, 주는 경우는 11.3%이며, 경제적 지원은 정기적인 현금지원이 37.0%,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이 93.0%, 현물지원이 90.6%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노부모가 비동거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지원도 정기적 현금지원 0.9%, 비정기적 현금 지원이 23.7%, 현물지원이 58.5%로 나타나,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없지만 다른 유형의 지원은 적지 않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세대 간 지원을 3세대 관점에서 연구한 고선강(2012)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수준을 통제한 이후에도 중년기 자녀(2세대)가 자신의 자녀(3세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와 자신의 부모(1세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이들 사이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중년기 세대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세대 간 지원이 활발한 가족 내에서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에게 모두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일방향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노년기 돌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족 돌봄자를 대상으로 돌봄노동의 실태를 파악하거나 돌봄 스트레스, 만족도,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의 효과성 등을 살펴보았다. 가족 돌봄자를 대상으로 노인 돌봄노동시간 및 스트레스를 살펴본 연구(김영란, 2007; 김동배, 박서영,

김상범, 2010; 서경현, 천경임, 2009; 장혜경, 홍승아, 이상원, 김영란, 강은화, 김고은, 2006; 조성남, 2006)에 따르면, 가족 내에서 노인 돌봄의 주 제공자는 배우자, 며느리, 딸 등 주로 여성이고, 가족 돌봄자의 건강상태가 돌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돌봄 노동시간이 길수록 스트레스는 높아졌다. 돌봄 노동 여성의 욕구와 노인요양보장정책을 살펴본 연구(박영란, 2007)에 따르면, 돌봄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집단은 취업 중단을 경험한 가족 수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이 이들의 신체증상과 우울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혼자녀세대는 부모가 연로해지거나 건강이 나빠질 경우에 예상되는 동거 부양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가족유형별 돌봄서비스 이용 의향에 관한 연구(김은정, 이신영, 2010)에 따르면, 노인 독거가족이 노인 부부가족이나 자녀 동거가족에 비해 돌봄서비스 이용 의향이 높았고, 생활시설을 통한 돌봄서비스, 지역사회 이용시설 돌봄서비스, 재택 돌봄서비스 중 자신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선택할 때는 서비스 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과 이후라는 시간 차이를 두고 제도의 효과성을 이용자의 경험과 주관적 해석을 통해 살펴본 연구(신경아, 2010)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전 노인과 가족구성원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이해받지 못하는 소통 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했으나, 제도 시행 이후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게 된 시간적 여유나 신체적, 정서적 돌봄 욕구의 충족 덕분에 노인과 가족구성원은 자신들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며 내면의 분노를 완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보호사와 노인은 유사가족적 친밀성을 경험하면서 자식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대체하고 있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노년기 가족 돌봄의 부담과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를 탈가족화하는 서비스와 정책이 개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노년기를 돌봄이 필요한 시기로 전제하고 이 시기의 돌봄을 가족과 사회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다. 그런데 가족의 미래를 전망하는 연구들을 보면, 현재와 같이 대면적이고 직접적인 돌봄의 부모 부양 방식은 약화되거나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혜영, 정재훈, 2011). 세대별 노후부양관의 차이를 살펴본 석재은(2009)의 연구에서도, 노후부양책임을 가족의무로 여기는 노령세대와는 달리, 젊은 세대일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개인책임으로 여기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후부양책임을 개인책임이기보다 가족책임과 국가책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의 노인세대는 건강과 경제적 수준의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노인들과 다르게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기나 정도가 다를 것으로도 예상한다(이성호, 2012).

이러한 연구들은 향후 노년기의 돌봄 방식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노년기 자체가 확장되면서 가족의 신체적 돌봄에 의존하는 시기가 비례하여 증가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으며, 신체적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에 다른 유형의 돌봄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물론 현재 가족의 돌봄을 받고 있는 노인들과 그 가족에 대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이나 주간보호시설과 같은 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지만, 100세 사회의 가족 돌봄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서비스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Ⅳ. 연구결과

1. 100세 사회 가족생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먼저 100세 사회의 정의(평균수명이 90세가 넘는 사회)를 설명하고, 언제쯤 100세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년 후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고(42.3%), 그 다음이 10년 후(33.4%), 30년 후(18.7%), 40년 후(5.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응답자의 75%가 20년 내에 100세 사회가 될 것이라 예측했고, 95%가 30년 이내에는 100세 사회가 될 것이라 전망한 것이다. 즉, 4명 중 3명은 20년 이내에 100세 사회가 된다고 보았으며, 10명중 9명은 30년 이내에는 100세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0~30년 후에는 100세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 것은 다음 세대인 자녀세대는 100세 사회일 것이라 예측하였다는 의미이다.

<표 3> 100세 사회 도래시기 전망

구분	빈도(명)	비율(%)
10년 후	267	33.4
20년 후	338	42.3
30년 후	150	18.7
40년 후	42	5.2
50년 후 이상	3	0.4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부부관계가 지금보다 더 중요해지며, 자녀로부터의 지원은 감소하는 반면, 부모로서의 역할은 감소하나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지역사회 활동에의 참여나 시설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문항은, '부부 중 한사람이 아플 경우, 자녀보다는 배우자가 주로 돌보게 될 것이다(평균 3.33점)', '우리 자녀세대에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이 줄어들 것이다(평균 3.33점)', '돌봄이 필요할 경우, 가족보다는 노인전문시설에 가게 될 것이다(평균 3.30점)'로 나타나 가족, 특히 자녀에 대한 부모부양 기대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예전보다는 부부가 정서적으로 더 많이 의지하게 될 것이다' 문항 역시 높은 점수를 보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부간의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녀에 대한 기대가 점점 낮아지는 것과 함께 부모의 자녀지원 역시 향후에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경제적 지원이나 정서적 지지가 덜 할 것이다'에 대체로 그렇다고 동의하였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 중 자녀에 대한 유산상속을 덜하거나, 손자녀 돌봐주기를 덜 할 것에 관해서는 3점 이하의 점수를 보여, 여전히 자녀에 대한 유산상속과 손자녀 돌보기는 부모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표 4> 100세 사회의 미래 가족모습에 대한 전망 차이

구 분		전체
부부 관계	부부관계가 부모자녀관계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다.	3.24
	부부 중 한사람이 아플 경우, 자녀보다는 배우자가 주로 돌보게 될 것이다.	3.33
	예전보다는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가 늘어날 것이다.	3.26
	예전보다는 부부가 정서적으로 더 많이 의지하게 될 것이다.	3.31
	예전보다는 남자가 집안일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	3.23
부모 자녀 관계	우리 자녀세대에는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덜 할 것이다.	3.19
	우리 자녀세대에는 부모에 대한 신체적 돌봄(간병, 집안일, 외출동반 등)을 덜 할 것이다.	3.19
	우리 자녀세대에는 부모에 대한 정서적 지지(전화, 방문, 대화 등)를 덜 할 것이다.	3.10
	우리 자녀세대에는 부모와 함께 하는 여가활동(여행, 쇼핑, 외식 등)이 줄어들 것이다.	3.09
	우리 자녀세대에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이 줄어들 것이다.	3.33
	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자녀와 함께 살 것이다.	2.49
자녀 부모 관계	우리세대는 예전보다 자녀에게 유산상속을 덜 할 것이다.	2.97
	우리세대는 예전보다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덜 할 것이다.	3.03
	우리세대는 예전보다 손자녀 돌봐주기를 덜 할 것이다.	2.98
	우리세대는 예전보다 성인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전화, 방문, 대화 등)를 덜 할 것이다.	3.05
	우리세대에는 자녀세대가 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하더라도 독립적으로 따로 사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이다.	3.27
지역 사회 관계	우리세대는 가족보다는 이웃이나 친구와의 교류를 더 많이 할 것이다.	3.11
	우리세대는 지역사회활동(문화센터, 복지관, 노인대학, 동호회 등)을 더 많이 할 것이다.	3.24
	우리세대에는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보다는 노인전문시설(요양시설, 노인병원 등)에 가게 될 것이다.	3.30
	우리세대에는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보다는 지역사회서비스(간병, 외출도움, 말벗서비스 등)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이다.	3.23
	우리세대에는 특별히 아프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실버타운과 같은 유료양로시설에 들어갈 것이다.	3.25
	우리세대에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친구, 이웃 등)과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3.05

한편,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활동을 더 많이 하고, 가족보다 이웃이나 친구와의 교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돌봄과 관련된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보면, 돌봄이 필요할 경우 가족보다는 전문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아프지 않아도 실버타운 등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으로써 의식주생활의 기본 단위로서 가족의 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1) 성별에 따른 100세 사회 가족생활 전망의 차이

100세 사회 가족생활에 관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남녀 간 유사한 방향으로 100세 사회를 전망하고 있으나, 일부 문항에 대해서 남녀 간 차이를 보인다.

<표 5> 성별에 따른 100세 사회의 가족생활 전망 차이

구 분		남성	여성	t
부부관계	부부관계가 부모자녀관계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다.	3.26	3.23	0.49
	부부 중 한사람이 아플 경우, 자녀보다는 배우자가 주로 돌보게 될 것이다.	3.37	3.30	1.58
	예전보다는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가 늘어날 것이다.	3.25	3.27	-0.43
	예전보다는 부부가 정서적으로 더 많이 의지하게 될 것이다.	3.28	3.34	-1.49
	예전보다는 남자가 집안일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	3.21	3.24	-0.62
부모자녀관계	우리 자녀세대에는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덜 할 것이다.	3.16	3.22	-1.22
	우리 자녀세대에는 부모에 대한 신체적 돌봄(간병, 집안일, 외출동반 등)을 덜 할 것이다.	3.19	3.19	0.17
	우리 자녀세대에는 부모에 대한 정서적 지지(전화, 방문, 대화 등)를 덜 할 것이다.	3.01	3.12	-0.94
	우리 자녀세대에는 부모와 함께 하는 여가활동(여행, 쇼핑, 외식 등)이 줄어들 것이다.	3.05	3.13	-1.67^{+}
	우리 자녀세대에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이 줄어들 것이다.	3.31	3.34	-0.81
	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자녀와 함께 살 것이다.	2.49	2.50	-0.14
자녀부모관계	우리세대는 예전보다 자녀에게 유산상속을 덜 할 것이다.	2.92	3.02	-2.11*
	우리세대는 예전보다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덜 할 것이다.	2.99	3.06	-1.61
	우리세대는 예전보다 손자녀 돌봐주기를 덜 할 것이다.	3.00	2.97	0.66
	우리세대는 예전보다 성인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전화, 방문, 대화 등)를 덜 할 것이다.	3.04	3.05	-0.22
	우리세대에는 자녀세대가 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하더라도 독립적으로 따로 사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이다.	3.26	3.27	-0.33
지역사회관계	우리세대는 가족보다는 이웃이나 친구와의 교류를 더 많이 할 것이다.	3.10	3.13	-0.74
	우리세대는 지역사회활동(문화센터, 복지관, 노인대학, 동호회 등)을 더 많이 할 것이다.	3.25	3.24	0.17
	우리세대에는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보다는 노인전문시설(요양시설, 노인병원 등)에 가게 될 것이다.	3.28	3.32	-0.82
	우리세대에는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보다는 지역사회서비스(간병, 외출도움, 말벗서비스 등)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이다.	3.19	3.36	-1.82^{+}
	우리세대에는 특별히 아프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실버타운과 같은 유료양로시설에 들어갈 것이다.	3.21	3.29	-1.87^{+}
	우리세대에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친구, 이웃 등)과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3.02	3.09	-1.67^{+}

우선 부부관계에 대한 전망은 남녀간 큰 차이가 없어 남녀 모두 예전보다 부부관계가 부모자녀관계보다 더 중요해지고, 부부 중 한 사람이 아플 경우 자녀보다는 배우자가 돌보고, 부부가 함께하며 정서적으로도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남성의 집안일 참여가 증가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부모자녀관계에 있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우리 자녀세대에는 부모와 함께 하는 여가활동이 줄어들 것이다', '우리세대는 예전보다 자녀에게 유산상속을 덜할 것이다'에 동의 수준이 더 높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녀에 대한 지원도 덜하고, 자녀에 대한 기대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관계 영역의 경우 '돌봄이 필요할 경우, 가족보다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이다', '우리세대는 특별히 아프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실버타운과 같은 유료양로시설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세대에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친구, 이웃 등)과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에 관해 남성보다 여성의 동의수준이 더 높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더 호의적인 전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녀차이를 종합해보면, 부부관계에 대한 전망은 유사한데 반해, 부모자녀관계와 지역사회 관계에 대한 전망은 남녀간 일부 차이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녀에 의존하기 보다는 독립적인 노후를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거나 노후의 여가생활을 함께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실버타운과 같은 시설에 의존하거나 이웃이나 친구 등 지역사회에 더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노후를 설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연령에 따른 100세 사회 가족생활 전망의 차이

연령별 차이를 50대와 60대로 나누어 비교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연령별 차이가 크지 않고 몇몇 문항에 대해서만 연령별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남성의 가사참여에 대한 전망으로 50대는 60대에 비해 남성이 예전보다 집안일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이는 젊은 세대에서 남성의 가사참여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는 '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자녀와 함께 살 것이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정도가 50대가 60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젊은 세대에서 자녀에 의존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노후생활을 설계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덜 할 것이다'에 대해서 50대보다는 60대가 더 크게 동의하고 있다. 이는 60대는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상태에서 노후에 대해 보다 더 현실적인 설계를 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50대보다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줄일 것이라 전망하는 것은 아닐까 해석된다.

지역사회관계에 대해서는 연령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100세 사회에는 더 중요해질 것이고 빈번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연령별 차이를 종합해보면, 50대는 60대에 비해 부부관계는 더욱 평등한 방향으로, 부모자녀관계는 더욱 독립적인 방향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전망은 본격적인 노후설계를 시작하는 60대가 50대에 비해 더 현실적인 전망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6> 연령에 따른 100세 사회의 가족생활 전망 차이

구 분		50대	60대	t
부부관계	부부관계가 부모자녀관계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다.	3.24	3.25	-0.11
	부부 중 한사람이 아플 경우, 자녀보다는 배우자가 주로 돌보게 될 것이다.	3.33	3.34	-0.19
	예전보다는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가 늘어날 것이다.	3.22	3.29	-1.58
	예전보다는 부부가 정서적으로 더 많이 의지하게 될 것이다.	3.32	3.30	0.34
	예전보다는 남자가 집안일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	3.27	3.18	2.03*
부모자녀관계	우리 자녀세대에는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덜 할 것이다.	3.22	3.16	1.29
	우리 자녀세대에는 부모에 대한 신체적 돌봄(간병, 집안일, 외출동반 등)을 덜 할 것이다.	3.21	3.16	1.26
	우리 자녀세대에는 부모에 대한 정서적 지지(전화, 방문, 대화 등)를 덜 할 것이다.	3.10	3.10	0.03
	우리 자녀세대에는 부모와 함께 하는 여가활동(여행, 쇼핑, 외식 등)이 줄어들 것이다.	3.06	3.12	-1.36
	우리 자녀세대에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이 줄어들 것이다.	3.33	3.32	0.27
	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자녀와 함께 살 것이다.	2.45	2.54	-1.68+
자녀부모관계	우리세대는 예전보다 자녀에게 유산상속을 덜 할 것이다.	2.96	2.98	-0.44
	우리세대는 예전보다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덜 할 것이다.	2.99	3.07	-1.72+
	우리세대는 예전보다 손자녀 돌봐주기를 덜 할 것이다.	2.95	3.01	-1.26
	우리세대는 예전보다 성인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전화, 방문, 대화 등)를 덜 할 것이다.	3.03	3.06	-0.45
	우리세대에는 자녀세대가 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하더라도 독립적으로 따로 사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이다.	3.25	3.28	-0.50
지역사회관계	우리세대는 가족보다는 이웃이나 친구와의 교류를 더 많이 할 것이다.	3.11	3.12	-0.24
	우리세대는 지역사회활동(문화센터, 복지관, 노인대학, 동호회 등)을 더 많이 할 것이다.	3.21	3.27	-1.22
	우리세대에는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보다는 노인전문시설(요양시설, 노인병원 등)에 가게 될 것이다.	3.28	3.32	-0.89
	우리세대에는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보다는 지역사회서비스(간병, 외출도움, 말벗서비스 등)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이다.	3.21	3.24	-0.54
	우리세대에는 특별히 아프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실버타운과 같은 유료양로시설에 들어갈 것이다.	3.26	3.23	0.53
	우리세대에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친구, 이웃 등)과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3.06	3.05	0.23

*p <.05

(3) 소득에 따른 100세 사회 가족생활 전망의 차이

소득을 상중하 3집단으로 나누어 100세 사회 가족의 모습에 대한 전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지역사회관계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부부관계 측면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상집단과 가장 낮은 하집단이 소득이 중간인 중집단에 비해서 부부관계가 부모자녀관계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또한 '부부 중 한사람이 아플 경우, 자녀보다는 배우자가 주로 돌보게 될 것', '예전보다 부부가 정서적으로 더 많이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데에 소득 상집단과 하집단이 중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향후 부부관계가 더 중요해 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소득이 상집단과 하집단이 중집단에 비해 더 강한 동의수준을 보이는 것이 특이한데, 소득이 낮은 집단의 경우, 자녀에 대한 지원이나 자녀로부터의 지원 양쪽 모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100세 사회 부부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중요해질 것이라 해석된다. 한편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자녀로부터의 지원 없이도 노후생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자녀에 대한 특별한 기대 없이 부부가 함께 하는 100세 사회를 전망하는 것은 아닐까 해석된다.

<표 7> 소득집단에 따른 100세 사회의 가족생활 전망 차이

구 분		전체	하	중	상	F
부부관계	부부관계가 부모자녀관계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다.	3.24	3.30	3.15	3.29	4.65**
	부부 중 한사람이 아플 경우, 자녀보다는 배우자가 주로 돌보게 될 것이다.	3.33	3.38	3.25	3.37	3.70*
	예전보다는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가 늘어날 것이다.	3.26	3.32	3.26	3.21	2.02
	예전보다는 부부가 정서적으로 더 많이 의지하게 될 것이다.	3.32	3.39	3.25	3.30	3.48*
	예전보다는 남자가 집안일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	3.23	3.30	3.23	3.17	2.74+
부모자녀관계	우리 자녀세대에는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덜 할 것이다.	3.19	3.27	3.17	3.14	2.69+
	우리 자녀세대에는 부모에 대한 신체적 돌봄(간병, 집안일, 외출동반 등)을 덜 할 것이다.	3.19	3.24	3.19	3.15	1.29
	우리 자녀세대에는 부모에 대한 정서적 지지(전화, 방문, 대화 등)를 덜 할 것이다.	3.10	3.20	3.08	3.03	4.60**
	우리 자녀세대에는 부모와 함께 하는 여가활동(여행, 쇼핑, 외식 등)이 줄어들 것이다.	3.09	3.22	3.06	3.03	5.92**
	우리 자녀세대에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이 줄어들 것이다.	3.33	3.42	3.31	3.27	3.79*
	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자녀와 함께 살 것이다.	2.48	2.52	2.56	2.41	2.76+
자녀부모관계	우리세대는 예전보다 자녀에게 유산상속을 덜 할 것이다.	2.97	3.03	3.00	2.90	3.01*
	우리세대는 예전보다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덜 할 것이다.	3.03	3.13	3.05	2.93	6.46**
	우리세대는 예전보다 손자녀 돌봐주기를 덜 할 것이다.	2.98	3.09	2.99	2.90	5.13**
	우리세대는 예전보다 성인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전화, 방문, 대화 등)를 덜 할 것이다.	3.05	3.12	2.98	3.05	2.86+
	우리세대에는 자녀세대가 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하더라도 독립적으로 따로 사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이다.	3.27	3.33	3.23	3.25	1.74
지역사회관계	우리세대는 가족보다는 이웃이나 친구와의 교류를 더 많이 할 것이다.	3.11	3.21	3.09	3.06	3.30*
	우리세대는 지역사회활동(문화센터, 복지관, 노인대학, 동호회 등)을 더 많이 할 것이다.	3.24	3.34	3.21	3.19	4.16*
	우리세대에는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보다는 노인전문시설(요양시설, 노인병원 등)에 가게 될 것이다.	3.30	3.38	3.25	3.29	2.58+
	우리세대에는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보다는 지역사회서비스(간병, 외출도움, 말벗서비스 등)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이다.	3.23	3.29	3.22	3.18	2.16
	우리세대에는 특별히 아프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실버타운과 같은 유료양로시설에 들어갈 것이다.	3.25	3.30	3.29	3.17	3.74*
	우리세대에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친구,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3.05	3.13	3.10	2.96	6.57***

※소득수준: 하(300만원미만), 중(3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상(500만원이상)
+p <.10, *p <.05, **p <.01, ***p <.001

부모자녀관계 측면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지원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 동시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지원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전화나 방문, 대화 등 자녀의 부모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여행, 쇼핑, 외식 등 자녀와 함께 하는 여가활동'이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더욱 크게 감소할 것이라 하였다. '자녀세대에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있어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하집단이 가장 강한 동의수준을 보였다. 한편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지원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에 대한 유산상속이나 경제적 도움, 손자녀 돌보기, 전화나 방문 등의 정서적 지지를 덜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더 크게 동의하였다. 반대로 소득수준이 높은 상집단에서는 여전히 유산상속(2.90)이나 경제적 지원(2.93), 손자녀 돌봐주기(2.90) 등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주어야 할 경제적, 신체적 지원이 줄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부모자녀관계에서는 거의 모든 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그 방향성이 소득수준에 따라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득이 부모자녀관계의 상호성에 영향을 주어 소득이 낮을수록 부모자녀 간에 서로 주고받는 호혜적 관계가 약화될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지역사회와의 관계 측면에서도 소득수준별 전망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특히 '가족이 아닌 사람들(친구, 이웃 등)과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상집단은 평균 점수가 2.96으로 3점 이하로 나타나, 가족이외의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보였다. 반면 소득수준이 낮은 하집단의 경우 그 점수가 3.13으로 상대적으로 동의수준이 높았다. '가족보다는 이웃이나 친구와 교류를 더 많이 할 것', '문화센터, 복지관, 노인대학, 동호회 등 지역사회 활동을 더 많이 할 것', '아프지 않아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유료양로시설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하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고, 소득수준이 높은 상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소득수준 상집단에 비해 하집단이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보다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소득수준 상집단은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 특징이다.

소득집단별 차이를 종합해보면, 부부관계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 소득 상집단과 하집단이 부부관계가 부모자녀관계보다 더 중요해지고 서로 의지하고 돌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그 의미 해석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부부관계중심'에 대한 해석이 소득집단별로 다른 것은 이후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전망을 통해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소득수준이 낮은 하집단은 부모・자녀 상호간 지원과 교류 정도가 더욱 적어질 것이라 예측하는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상집단은 여전히 부모로서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지원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소득 하집단은 자녀에 대한 상호지원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중심'으로 가는 상황이라면, 소득 상집단은 자녀에 대한 상호지원이 여전히 존재한 상태에서 '부부중심'으로 가는 상황인 것이다. 두 집단의 '부부중심'은 전혀 다른 의미인 것이다. 마지막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득집단 간 견해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기대와 개방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더 이상 가족 내에서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지지를 받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반대로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여전히 가족 내에서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기능들이 충족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2. 100세 사회 가족생활 전망에 대한 집단면접 조사결과

1) 100세 사회 도래시기에 대한 인식

40대인 나에게는 막연한 미래, 부모님에게는 가까운 미래

FGI 조사 결과, 40대 여성 집단은 100세에 대해 평소 잘 생각해보지 않은 생소하고 먼 미래(A-3)로 느끼고, 100세까지 살아야하는지 의문(A-2)이라는 막연한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본인들의 부모님 나이를 생각하면 실제 100세 사회가 아주 먼 미래만은 아니라고 느껴진다(A-2)고 한다.

>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0세가... 너무 먼 얘기고, 100살까지 살아서, 뭐 누워만 있어서, 그런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막상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정말 얼마 안남은 일이구나.. 곧 다가올 일이구나 싶어요(A-2)

50대에게는 준비가 안 된 불안한 현실, 부모님은 이미 100세 사회

FGI 조사에서 50대 여성 집단은 보다 현실적으로 100세를 인식하고 있었다. 가장 크게는 100세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한 불안감(B-1, B-2)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리고 실제 90세 이상 생존하신 부모님을 보면서 100세 사회를 이미 실감(B-2)하고 있었다.

> 100세 사회다 실감을 하는게, 요새 저희 애들 아빠 나이에 부고장이 오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그냥 70, 80 이었는데 요새는 60에 오고, 90에 와요. 60에 사람들이, 보면 친구들이 돌아가신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90에 오는 거에요. 부모님이 오시니까. 지금 벌써 90 이상을 다 산다는 건데... 그 삶이, 보면은 그 집집마다 보면은 그래도 자식이 잘 살으면은 어느 정도는 되는데, 못 살으면은 그게 참 난감하고.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세대는 다 준비들을 안 해놓은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우리는 더 비참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B-2)

50대 남성 집단에서는 100세 사회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강하게 드러났다. 특히 노후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걱정과 체력적 한계에 대한 염려(D-2, E-3)를 읽을 수 있었다. 50대에 벌써 은퇴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50대 남성들에게 있어 노후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인 것이다.

저는 100세하면 덜컥 겁이나요. 실질적으로 우리같은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정년은 55세이거든요. 아무래도 자녀들이 어리고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노동을 해서 뒷바라지를 해야하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역시 나이가 들면 체력적으로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기운이 떨어지잖아요.....그런데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이 그래도 경제력이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노후에 대해서 설계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이 가능하지만은, 정말로 체력이 다할 때까지 벌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100세가 겁이 날 수밖에 없지요. 진이 다 빠진 다음에 여생을 어떻게 버틸 것이냐, 그런 것이거든요.(D-2)

60대에게는 체감되는 현실, 사회 변화를 기대

60대는 이미 은퇴를 경험함에 따라 100세 사회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즉 100세 사회가 본인들에게도 해당되며, 이럴 경우 건강이 중요함(C-5)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더 오래 살게 된 현실에 비해 사회는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음(C-4)을 가장 구체적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100세까지 살게 된다면 60대는 노인이라 할 수 없는데, 근데 이 사회가 그렇게 안 만들잖아 지금. 벌써 55세에 벌써부터 퇴직들을 해서. 한참 일할 나이에 노인네 행세를 하고 앉았으니... 난 그거 먼저 고쳐주면 될 것 같더라고(C-5)

집단면접 조사결과, 연령대별로 100세에 대한 인식과 느낌에 차이가 드러났다. 40대인 경우 아직까지 자신의 생활에서 100세 사회를 현실감있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부모님의 가까운 미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40대의 100세 사회에 대한 생각은 생소함과 막연함으로 정리가 된다. 반면, 50대인 경우 40대 보다는 좀더 현실적으로 100세를 바라보고, 본인들의 노후생활과 관련하여 현실적 대비가 안 된 것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미래 노후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은 남성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60대는 100세 사회를 가장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으며, 건강의 중요성과 이를 위해서라도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더 연장해주는 사회적 변화를 가장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 100세 사회 생활에 대한 기본적 요구

:일자리와 소일거리는 100세 사회 필수품

100세 사회 가족생활 전망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구로 제기되는 것이 바로 일자리, 소일거리에 대한 것이었다. 모든 인터뷰에서 노후의 일자리 또는 소일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었다. 노후생활의 경제적 원천으로서 일자리의 의미와 생활의 즐거움, 활력의 의미로서 소일거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100세를 살게 되니까 일자리가 더욱 중요해지기도 하였지만, 100세를 살기 위해서라도 일자리가 꼭 필요한 것이다.

일반 회사들은 길어봐야 높은 직 아니면 보통 육십에서 끝나잖아요. 오십에서 육십 대까지는 그냥 간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70(세), 80(세), 90(세)을 살아야 하는데, 이건 이제 국가에서 책임지는 연령이에요. 그러면 이걸 체계적으로 70대에서는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그것도 좋지만, 70대에서는 어느 일을 하고 국가에서 공공근로로. 또 80대는 연세가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쉬운 일을 하고, 90대에는 이렇게 뭐 생활체육 몸 건강하게 관리하게 하기위해서. **일을 떠나서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70, 80, 90대를 관리 시스템을,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살면서 100세 시대를 얘기**하는거지. 무턱대고 100세 산다. 그건 아니죠.(E-1)

노인들은, 돈은 모르겠어. 생활이 달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돈에는 별로 구애를 안 받아요.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만 **일단 출근할 데가 있다, 일 할 데가 있다 이것이 중요하지.... 젊은 사람 100만원 준다면 이런 사람은 50만원만 줘도.**(C-5)

인터뷰를 통해 50대, 60대에게서 노후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됨을 알 수 있었다. 79세에도 봉사를 다니시며 갈 곳이 있어 즐거워하는 어머니의 사례(B-1), 밖으로 돌아다녀야 잡념이 없어 오래 산다는 아버님의 사례(E-4)에서 볼 수 있듯이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는 100세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다. 젊은 사람 인건비의 반만 받고도 일해야 한다는 주장(C-5)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들에게 일의 의미는 복합적이다. 노인의 연령층을 70세 이전과 70세 이후로 두 집단으로 나누고 70세 이전에는 소득활동으로서 일을 하다가, 70세 이후에는 사회참여활동으로서 소일거리로 전환되는 모델(B-4)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100세 사회의 노후가 길어진 만큼, 노인이 더 이상 하나의 집단으로 동일한 특성을 지닌 노인이 아닌 것이다. 노인의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일거리를 세분화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득 계층에 따라서 일자리가 갖는 의미가 다르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100세 사회 가족생활 전망

(1) 부부관계 : 부부중심의 생활과 여가

FGI 조사에서도, 100세 사회 가족생활에서 부부관계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다수가 동의하였다. 자녀 독립 후 부부만 남게 되면, 당연히 부부관계가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하고, 특히 함께 할 취미나 활동, 일상적 가사나 생활을 중심으로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인식(A-3, B-1, E-3)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앞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성의 평균수명이 늘어나 남녀, 즉 부부가 함께 사는 기간은 길어지며, 자녀에게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식과 상황의 변화가 맞물려서 부부 상호간에 의존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적 여건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년기까지 결혼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부부 두 사람 중 한사람이 사망하기 이전까지 부부만 생활하게 되는 빈둥우리시기가 길어지므로 100세 사회의 가족생활에서 부부관계의 중요성은 현재보다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인터뷰결과에 따르면 남편이 퇴직한 50대 여성은 퇴직 후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과 부부모임이 많아져 예전에 따로따로 보내던 생활방식이 부부가 함께하는 생활방식으로 변하고 있다(B-1)고 하였다.

• 자녀 독립 후 결국 남는 건 부부

한 20년 후로 보면은 애들이 어느 정도 성인이고, 우리는 이제 노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때 생활의 모습이 인제 아이들을 출가를 시켰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남는 건 부부... 둘이 남은 부부가 정말 갈수록 뜻이 맞아서, 취미라든지, 우리는 아무래도 신앙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나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는 바램이죠(A-3)

• 젊었을 때는 따로따로, 이제는 항상 부부가 함께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부모임이 많아요....이게 퇴직들을 하고 나니까는 부부모임으로 돌아가더라구요.....그러니까는 이게 남자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것도 있지만, 갈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갈수록 같이 가는 데가 많고, 놀러 가는 것도. 이게 뭐 젊었을 때는 따로따로 가지만은, 항상 놀러가는 것도 같이 가게 되더라구요.(B-1)

그러나 한편으로 은퇴를 현실로 경험하는 60대의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부부 상호간에 매우 불편해하고 있으며(C-5), 현재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함께하는 생활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어 서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C-3)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사는 기간은 길어져서 부부 상호간의 의존은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중년기까지의 부부관계에 따라 이후의 가족생활의 질적 측면은 어느 정도 다양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저는 같이 퇴직하려고 했거든요. 같이 하려고 양평으로 아예 들어가 버렸는데, 주위에서 막 그만 두면 후회한다고 그만 두지 말라고. 그래서 진짜 그냥, 그냥해서 여태까지 왔는데, 그만 안 둔 것이 천만다행이고...어쨌든 며칠 같이 있어보면, 아니에요... (중략)... 서로 잔소리한다고 싫어해요(C-5)

타고난 성격이 외골수로 살아서 지 하나로만 태어나가지고. 뭐랄까. 상대가 안돼. 대화가 안돼.... (중략) 헤어질 생각 하죠. 했죠. 벌써 뭐 옛날부터. 체념한지 오래 됐어요... 요즘에는 좀 뭐랄까, 각자 인생을 살아요(C-3)

(2) 자녀에 대한 기대 감소

부부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동시에 자녀에 대한 기대는 크게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많았다. 자식보다는 보험에 의지한다(B-1), 자식들에게 부모로서 해줄 것은 해주지만 자녀에게 기대는 안한다(E-3), 애인 생기고 취직하면 자식에 대한 기대는 버린다(E-4)고 표현하면서 자녀에 대한 기대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으로는 노후에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과 부모가 아플 때 자녀들이 돌봐주면 좋겠다는 기대를 내비치는 50, 60대 여성의 경우(B-4,

C-4)도 있었다.

• 자식보다는 보험에 의지

자식한테는 기대를 안하죠.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하니까는 보험에서도 이제 간병비가 나와요. 24시간 간병을 할 수 있는. 인제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러다보니까 24시간 간병에 대해 관심이 엄청 많아졌어요. 자식이 나를 24시간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에요. 아무도. 네버야 진짜(B-1)

• 자식들한테 베풀지만 기대는 안한다

그게 다 뭐여 부모들이 자기들이 고생했으니까 새끼들은 고생 안 시킨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한테 베풀었음 베풀었지, 자식들이 우리한테? 다음에 없어요. 나는 없다고 봐요(E-3)

• 제 살기도 힘든 자식한테 기대는 무슨...

기대는 하죠, 다 부모들이. 잘 하면 좋겠지 하는데, 자기들 생활이 진짜 여건이 돈을 많이 번다든지 이래야 부모도 생각을 하지 또 살기가 힘들면 못 그러지(C-4).

(3) 자녀에 대한 지원 감소 : 불행한 샌드위치 세대, 더 불행한 젊은 세대

FGI 결과에서도 부모부양에 대한 자녀에 대한 기대가 줄어듦과 동시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원 또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부분 경제적인 면에서 유산상속을 크게 해주지는 않지만, 독립적인 경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준다든지(A-3), 정말 힘들 때는 도와주는 정도로 부모가 지원해 주어야한다(E-2)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50대인 한 여성은 자신들이 샌드위치세대로서 부모도 부양하고 자식도 부양해야하는 이중적 부양 부담을 떠안는 불행한 세대이지만, 자신들보다 더 불행한 세대는 100세 사회의 길어진 노후로 더 이상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줄 여력이 없는 샌드위치 세대를 부모로 둔 현재 젊은 세대라는 냉소적인 이야기(B-2)를 전달하였다. 샌드위치 세대인 50-60대와 이들을 부모로 두고 있는 현재 30~40대, 어느 쪽의 삶의 부담과 무게가 더 크다고 말하기 힘든 것이 바로 100세 시대 가족의 현실인 것이다.

•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 역할

경제적인 거를 얘기한다면, 현 상태로는 유산으로 별로 줄게 없을 거 같아요. (웃음) 사실 저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가르켜주고 싶고,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때, 정말 그 사회인으로서 사회에서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주고 싶어요(A-3).

• **유사시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부모**

그런 것도 있죠. 내 자식이 무엇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벌금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뻔히 내가 있는걸 아는데, 안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너 알아서 해라 그냥 나 먹고살아야하니까, 이건 안 되잖아. 부모니까..(E-2)

• **샌드위치 세대 50대, 이보다 더 불행한 30대**

저희 동네 사우나가 있어요. 이제 거기 가서 거기가 젊은 층이랑 연세 많은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중간층이에요. 저희가 거기 가서 아이고 우리가 시집살이 제일 많이 했다고, 우리가 노인네들 모시는 마지막 세대고, 자식에게 버림받는 마지막 세대다. 너희가 우리 봉양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30대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자기네가 제일 불행하다는 거에요. 그래서 왜 불행하다고 했느냐고 하니 그래도 노인네들에게 받은 게 있지 않느냐고. 생각해보면 그래요. 어쨌든 우리 부모들은 안 먹고 안 쓰고 우리에게 그렇게 해줬는데, 자기네 부모는 내가 100세까지 살으니까 니네 못 준다, 못 한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받지도 못하고. 그 대신 그 어르신 분들이 그 100세까지 살 준비를 해 놨느냐 하면 안 해 놨다는 거야. 그러면 한 80세까지만 살으면 나머지는 자기네 몫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그 얘길 듣고. 아 맞다...그러니까 다 자기의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불행하대요.(B-2)

(4) 여성들의 걱정거리 '손자녀돌보기'

여성들의 인터뷰 내용 속에서 자녀에 대한 지원의 한 형태로 손자녀 돌봐주기가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졌다. FGI 결과, 성인자녀의 손자녀를 돌봐주는 것에 대한 입장은 세 가지로 나뉘었다. 우선 자녀들이 맞벌이를 할 경우에는 손자녀를 조부모가 돌봐주어야 한다는 입장(A-2, C-5)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부모가 직접 키우고 불가피한 상황이나 힘들 때 조부모가 가끔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자녀를 지원한다는 입장(A-3),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식은 부모가 직접 키워야한다는 보수적인 입장(A-1, A-4, C-2)으로 대별되었다. 이렇게 입장은 세 가지로 나뉘지만 여성들은 인터뷰 속에서 공통적으로 손자녀돌보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는 여전히 여성들이 가정 내 돌봄 역할을 지속해야하는 부담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 **젊은 사람들 일하려면 손주는 봐주어야**

봐줘야 될 상황이면 봐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일을 해야 하잖아. 그러면 애 맡길 데가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면 일이 제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일을 제대로 해야 이 사회도 뭐가 되고 하는데. 일을 제대로 못 할 것 같으니까....(C-5)

• **지칠 때 조금씩 도와주는 정도**

전폭적으로 다 나한테 맡겨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조그마한 도움을 받는 것도 감사하고,

나를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에서 도와주고 싶고. 애가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데 지치잖아요? 지칠 때, 보통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비타민 주사를 맞는다든지, 링거를 맞는다든지. 그 런 정도로, (A-3)

• 며느리도 딸도 일 그만두고, 엄마가 아기를 키워야한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엄마가 애기를 어느 순간까지는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며느리 들어앉히고 우리 딸이 다음 달에 애기 낳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다니고 안 다녀요. 그만 두라고 했어요.(C-2)

(5) 돌봄에 대한 의존도 : 자녀→배우자→시설로 변화

FGI 분석결과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배우자, 자녀, 시설에 대한 의존도를 분석해 보면, 앞서 설문조사결과와 유사하게 가족내에서는 자녀보다는 배우자에게 의존하고, 상황이 악화되어 가족내에서 해소할 수 없게 되면 시설에 의존하겠다는 인식이 지배적(A-1. C-2)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요양원같은 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마음내키는 선택은 아닌 듯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픈 가족을 가족 내에서 돌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변에 오랫동안 아픈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을 '공자'(E-1)또는 '돌연변이'(E-4)로 묘사하기까지 하였다.

• 아플때는 요양원에서 전문인의 케어를

저는 자녀들도 자기 생활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못 할 경우가 있잖아요. 체력적으로 안 되거나 경제적으로 안 되거나, 그럴 땐 도움을 받아야 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요양원을 가서 나라의 도움을 좀 받아서....(중략) 그런 것도 내가 마음으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야 자식도 안 섭섭해 하고, 나도 안 섭섭하고(A-1)

• 며느리도 딸도 아닌 시설로

시설로 가야 할 것 같아. 우리 며느리가 날 봐주겠어 우리 딸한테 짐을 주겠어..(C-2)

• 남편이 오래 수발하는 사람은 '공자'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해줘요. 내 부모니까. 근데 이게 길어지면 남편도. 아무리 한 평생 날 밥해주고 그랬지만, 길어지면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은 어느 정도에서는. 뭐 텔레비전에서 보면 십년 동안 손발 씻겨주고 하는 건 공자들이고(E-1)

• 시아버지를 17년 모시는 건 '돌연변이'

우리 사촌동생은 지금 시아버지를 17년인가 모시는데, 아파트에 살면서도 그게 소문이나서 효부상 주던데...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 있다니까 돌연변이들이(E-4)

(6) 가족에 대한 기대, 시설에 대한 거부감

한편 돌봄이 필요할 경우 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알지만, 여전히 가족에 의지하고 싶은 기대가 드러난다. 여성들의 인터뷰 속에서, 부인이 아플 때 남편이 돌봐주는 모습이 제일 아름답다(A-3)거나 요양원에 갈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두어야 섭섭하지 않다(A-1)거나, 마음과 머리가 따로 노는 과도기적 상태(A-2)라고 표현하는 데에서 여전히 가족에 대한 의존과 기대가 강하게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들의 경우 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여성들보다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인터뷰를 통해 시설에 가느니 시골에 가겠다(D-2), 몸이 아파도 집사람하고 같이 집에 있는게 편할 것 같다(D-3)는 식으로 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주었다.

• 부부가 도와주는게 가장 아름다움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부부간에 한 명이 아팠을 때에는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하는 게 부부에요. 부부가 도와주는 게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TV에서 아침에 하는 거, 치매 걸린 부인을 남편이 돌보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너무나,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A-3)

• 머릿속으로는 공공서비스, 마음은 가족에게 기대하는 과도기적 단계

저희 남편은 특이하게 워낙 잘하기 때문에..(나를) 돌봐주지않을까, 나도 물론 돌봐줄 생각이 있고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또 자식에게 짐을 지우기 보다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도기적인 단계가 있어서. 머릿속으로는 그거를 원하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 깊이 보면 가족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마음과 머리가 따로 노는 그런 상태...(A-2)

• 시설에 가느니 시골에 간다

가고 싶은 생각이... 할 수만 있다면, 같이 시골에 가서라도 같이 있고 싶지, 시설에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D-2)

• 같이 아파도 집사람하고 우리집에 있는게 편해요

나도 그러거든요. 시설이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끌려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식한테 거기 사세요, 할 것 같다든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원해서 몸이 좀 거동이 불편하다고 해서 '아 우리 시설 가세'그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편하면 우리집이 편하거든요. 집사람하고 같이 몸이 좀 아파도 같이 있는 게 편할 것 같아요.(D-3)

4)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요구

(1) 지역사회 시설에 대한 요구 : 요양시설, 노인공동쉼터, 노인정

대부분의 경우 싫든 좋은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시설에 대한 요구가 크게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저렴한 가격의 실버타운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B-2)', '노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쉼터가 필요하다(E-1)', '노인정을 새롭게 계획하여 활용도를 높여야한다(E-4)'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국가가 운영하는 저렴한 요양시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어느 선이 되면은 요양시설을 해갖고 그쪽에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또 보통 (본인이 원하면) 본인이 원하면. 근데 요새는 지금 한 80, 90 되시는 분은 본인이 안 원해요. 무조건 가족하고 살아야 한다는 게 문젠데, 저희 나이 때는 스스로 가길 원해요. 다들 물어보면은 아오, 돈이 되면은 요양시설을 다 가겠다고 하니까는 그 국가에서 하는 요양시설, 그거를 많이 장려를 하면은 (시설도 좋게 하고) 가격도 좀 싸게 하면은 될 거 같은데(B-2)

• 동네 공동 쉼터에서 활동

그러니까 동네에 공동 쉼터를 만들어 줘가지고 오전에 햇빛도 좀 보고 오후엔 어디 좀 가서 같이 동네 그룹끼리 뭐 좀 하고 조금 조금씩 몸을 쓸 수 있게 해줘야 되지.(E-1)

• 노인정 프로그램 개발

지금 노인정같은 시설을 더 나은 시설로 계획을 해줘야하지..안 가죠. 지금 노인정 같은걸 하되 계획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주면은 화투는 안치지 않겠냐 이거지. 안 치고 다른 걸 업으로 해서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지. 레크리에이션 같은 것도 개발하고. (E-4)

(2) 지역사회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 여가프로그램과 여가교육 필요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상당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노인들이 만나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공간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문화센터 등에서 노인들을 위한 취미교실(A-1, B-4) 이나, 노인수준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들(A-2)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이 되기 전에 미리 교육을 통해 부부가 노후의 여가생활을 준비할 필요도 있다는 인식(D-4)까지 찾아볼 수 있다. 여가력(餘暇歷) 관점에서 보면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야하는 것이 바로 '여가'이다. 이러한 인식은 100세 사회에 대한 준비 또한 전생애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여가를 찾고자하는 노력도 간간히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노후에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 집에 있으면 우울증, 치매, 70넘어도 밖으로 돌아다녀야

저기요, 70이 되어도 집에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 일을 안 해도 어디 여가로 나가서 활동도 하고 음악교실 다니고 자꾸 이렇게 대화를 남들하고 해야지 아프지도 않고 치매도 안 오고 그렇지,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 오고 병이 생기고 치매가 일단 오더라고요. 내가 주위에 많이 보니까 이렇게 성격이 좀 내성적인 사람은 많이 그게 오더라고요 우울증 오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가서 밖에, 밤에는 잠만 자고 낮에는 일단 돌아다녀야 될 것 같더라고요.(C-4)

•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운동 프로그램 개발

운동에 대한 얘기는 나도 생각해본 게 있는데. 운동을 한다고 했을때 우리 부모님들은 보통 헬스장을 가셔요. 처음엔 등산을 가거나, 골프를 치시는데, 이제 몸이 힘드니까, 그런 활동들이 줄면서, 같이 다닐 친구들이 없어지면서, 동네 헬스장을 가시는데, 가보면 막상 노인의 몸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 만약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을 운동시킨다면, 노인에 수준에 맞는 관절 운동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A-2)

• 젊었을 때부터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여가교육이 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유가 있으신 분 같은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파트 주위만 돌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고, 서로 찾기만 하고 그러시데요. 그런 것을 보면 더 늙기 전에 어렸을 때 좀 할 수 있었던 일을... 교육이라던가 그런 것을 통해서 배웠으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서라도 할 수 있고, 했었을 건데...그래서 저도 뭐 할까, 나이 먹으면 뭐하지, 그런 생각을 이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보고도 싶고. 와이프하고 같이 하려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또 취미가 안 맞다 보니까 하기 싫고요. (D-4)

(3) 대안적인 생활양식 : 원룸의 독립적 생활, 친구끼리 공동체 생활

가족이나 시설이 아닌 대안적인 형태로 원룸에서의 독립적 생활(B-2)과 친구끼리의 공동체 생활(C-2, C-5)을 100세 사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제안하기도 하였다. 원룸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어울린다는 점에서 '따로 같이'생활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건강하다면 마음이 맞는 친구와 함께 가족처럼 지내는 것도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고려대상이 되었다. 특이한 것은 가족이 아닌 대안적 형태의 생활이 모두 여성들의 인터뷰 속에서 제안되었다는 점이다. 배우자 사후에 혼자 남게 될 여성들이 자신의 긴 노후를 걱정하면서 생각해 낸 새로운 삶의 방식인 것이다.

• 노인들의 새로운 주거형태, 원룸

저희 친정 엄마 동네에 원룸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가 그러는 거에요. 얘, 저기 원룸이 생겼는데 저기 도대체 누가 들어올까 그랬더니, 어느 날 가보니까는 원룸에서 할머니들이 줄줄줄줄 나오더래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 여기 왜 사느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들이 이제 그 처음에는 그 지금 70이나 80되면은 그 큰아들이나 작은 아들하고 산 세대에요, 많이. 자기가 큰 아들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큰 며느리가 머리가 희끗희끗하더래요.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만저만해서 보니까는 나는 몰랐는데 너네 형수가 머리가 희끗희끗하는데 나는 해방을 좀 시켜줘야지 되겠다. 그러고 이 할머니는 둘째가 불를래나, 셋째가 불를래나 그랬더니...그 원룸을 얻어놓고 용돈을 드리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 섭섭했는데, 자기 너무 편하다는 거에요. 그 할머니들이 그 원룸에 9분인가 몇 분이 사신대요... 그러고는 아들이 용돈 20만원을 주는 데 20만원으로 어떻게 생활하냐면, 고 옆에 또 그 교회에서 그 점심에 밥이 2000원인데 너무 잘 나온대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사먹고 노인네들끼리 낮에 모여가지고...그래도 그게 혼자 있는 것 보다 낫다네요.(B-2)

• 친구들과 함께 사는 공동체

그러니까, 아프거나 해서 혼자 됐다고 하면 난 친구들하고 사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말이 통할 수 있는 친구들하고 공동으로 모여서 사는 것도 참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C-2)

• 친구들끼리 사는 멋쟁이 할머니들

1층 집에 멋쟁이 할머니 둘이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친구래요. 아주 멋쟁이예요. 모자 딱 쓰고 옷도 얼마나 좋게 잘 입고 다니는지 몰라... 그때 볼 때 완전히 할머니였어요. 70 훨씬 넘었을 거예요. 둘이서 그렇게 산대요, 친구둘이서.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건강만 하면 통하는 친구들이랑. 혼자가 되면. 같이 살면.(C-5)

5) 100세 사회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요구

(1) 생애적 관점의 가족생활교육(부부교육, 부모교육, 노인준비교육)

100세 사회 가족생활을 전망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부부교육,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강하게 제기되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그동안의 가족생활 경험을 토대로, 부부됨, 부모됨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A-3, A-4, B-1, C-2)고 느끼고 있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길어진 가족생활주기를 생각하면 가족 형성 초기부터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를 건강하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A-3, A-4, C-2))한 것이다. 또한 나이 드신 부모님을 보면서 노인준비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40대 여성(A-1)도 있었다. 노인에 대한 이해를 미리 하는 것이 부모님 뿐 아니라 본인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건강한 가정-건강한 사회, 결혼준비교육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

제가 그렇게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서, 아 이거는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할 문제가 아니구나, 왜 그러냐하면, 한 개인이 건강해야, 건강한 가정이 태어나고, 건강한 가정이 사회를 이루자나요? 그 사회가 국가를 이루고,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강한 남녀를 만나서 건강한 가족을 이루려면, 그 가족의 의미, 서로 감당해야할 책임의 의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그런데 이게 모르고 그냥,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도피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내가 결혼을 할 때, 무슨 생각으로 결혼을 했나 돌아봤을 때, 정말 아무 것도 한 게 없더라고요.(A-3)

• 대학에서 결혼준비교육,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이해

캠퍼스에서, 대학에서, 교선 과목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결혼준비교육을, 사실은 저도 그런 교육 하나 없이 해봤지만, 다들 해보고 나니까, 경험해보니까, 결혼 전에 그런 거 정말 책들도 많이 나와요. 여자하고 남자는 너무나 다르니까, 나는 여자지만, 남자는 여자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걸 실감하지 못하고 결혼했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런 교육들이, 이론적인 교육도, 실천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A-4)

• 노인교육은 무의미, 젊은 사람들 부부교육, 부모교육이 중요,

우리가 노인 돼서, 남자나 여자나 노인 돼서 교육을 시킬 생각을 하지 말고, 정책을 조금 바꿔서 젊은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해요. 부부가 정말로 부부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를 교육시켜가지고 부부가 되어야 할 것 같아. 그냥 무조건 엄마아빠가 되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될 때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는. 잘 융화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부교육을 시켜서 애기를 낳고 키우고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될 것 같아(C-2)

(2) 남성의 생활자립을 위한 남성교육

40대, 50대, 60대 FGI 여성 집단에서 모두 동일하게 남성교육의 필요성이 강하게 드러났다. 부인이 없으면 밥도 못해 먹고 굶는 남성들에게 100세 사회는 상상하기 힘든 현실이다. 내 아들이 최고인 부모님 밑에서 귀하게 자란 남성들이 결혼해서 부인이 해준 밥만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퇴를 맞이하게 되면, 그야말로 자립능력이 제로인 무능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스스로 밥도 못 챙겨 먹는, 항상 누군가에게 자신의 먹거리를 의존해야하는 상황은 100세를 전망하기 힘든 조건이다. 그래서 모든 부인들은 무능한 남편들의 자립적 생활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A-3, B-1, C-2, C-3)하고 있고, 남편들은 100세 사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가사도우미' 제도(E-4)를 언급하고 있다. 참을성을 가지고 남편교육을 이끌어가는 40대 여성은 새삼 자라나는 아이들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는다(A-3). 100세를 살아가려면 남성들의 자립적인 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 밥도 못해먹는 남편

아내가 나갔는데 밥을 못하는 거에요 남편이. 밥통 조종을 못해가지고. 그걸 못 열어 가지고. 한 번 나왔잖아요 드라마에서. 이제 100세 시대니까 퇴직과 더불어 역할 좀 바꿔서 해봤으면...(B-1)

• 간단한 음식은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간단한 우리나라 음식 같은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정책으로 해서 시키면 좋겠어요(C-2)

• 가사도우미가 필요한 남성

저는 생활 도우미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주위에서 가만히 보니까. 가사 도우미가 있으면 자기가 노년에 돈이 있으면, 도우미만 있어도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E-4)

• 가정생활 속 남편 교육, 어릴 때 교육이 중요

남편 같은 경우는 자라면서 연습이 안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제 인식이 되니까, 아 하나 하나부터 연습시키고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혼자 어디를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는 당장 자기가 불편해서, 자기가 힘들거든, 못하면, 내가 없더라도 생활할 수 있게끔, 연습을 시켜줘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시점을 남편이 일선에서 물러났을 때, 그 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시키면서 그 때 가서는 좀 도와 달라 그러고, 장도 보러가고, 연습을 시켜야 하겠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생활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또 깨달은 거예요 제가.(A-3)

Ⅴ. 결론 및 논의
: 100세 사회 가족생활 전망 및 가족정책에의 함의점

앞서 제시한 50~6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40~6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 FGI 면접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100세 사회의 가족생활을 다음 7가지 측면으로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100세 사회에 대응한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100세 사회 뉴노멀 패러다임으로 전환

먼저 시기적으로 100세 사회에 대한 전망을 조사한 결과, 20년 후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고(42.3%), 그 다음 순으로 10년 후(33.4%), 30년 후(42.3%)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20~30년 후에 100세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FGI 조사에서는 연령대별로 100세에 대한 인식과 느낌에 차이가 드러났는데, 40대인 경우 아직까지 100세를 막연하고 생소하게 느끼는 반면, 50~60대는 현실적인 문제로 지각하여 본인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보였으며, 특히 남성들에게서 노후에 대한 걱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00세에 대한 일반인들의 전망에서 나타났듯이 100세 사회 가족정책의 1차적인 타겟 대상은 곧 노후를 맞이하게 될 베이비붐세대가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아직 젊은 40대의 막연한 대처를 고려하면 뉴노멀 관점에서 100세를 맞이한 노인세대 뿐 아니라 전 생애주기별 집단에 대한 정책을 100세 사회 관점으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전생애주기에 걸쳐 100세 사회를 대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2) 부부중심, 자기돌봄 중심의 가족관계

100세 사회의 가족 전망을 위해 100세 사회가 되었을 때 응답자의 가족을 떠올리며,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변화 양상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부부관계가 지금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동의하였다. FGI 조사에서도, 100세 사회 가족생활에서 부부관계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자녀 독립 후 부부만 남게 되면, 당연히 부부관계가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하고, 특히 함께 할 취미나 활동, 일상적 가사나 생활을 중심으로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100세 사회에는 부부관계 중심의 신체적, 정서적 의존과 여가 및 가사 공유가 커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생활을 함께 하는 단위로서 부부관계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만큼 100세 사회 노인부부가 서로 돌보고 부양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가족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건강한 노인이 스스로 자기돌봄이 가능한 조건으로서 신체적 돌봄 지원, 가사지원, 여가 공유와 정서적 지원 등 100세 사회 새로운 가족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3) 부모자녀관계의 상호 호혜성 약화

부모자녀관계는 부부관계보다 덜 중요하게 인식하여,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지원은 감소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유산상속이나 손자녀 돌보기와 같은 부모로서의 역할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으로써 독립적인 부모자녀관계의 한계를 보였다. 즉, 베이비부머세대인 현재 50~60대 부모들은 자녀가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것이라 기대는 하지 않지만,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은 완수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FGI 조사에서도 부부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동시에 자녀에 대한 기대는 크게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많았다. 자식들에게 부모로서 해줄 것은 해주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쌍방향의 호혜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사라질 것이라 전망할 수 있으며, 이는 20~30년 후 100세 사회 노인이 될 50~60대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설계가 가족정책의 주요 과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부양에 대한 자녀에 대한 기대가 줄어듦과 동시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원 또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FGI 결과, 경제적인 면에서 유산상속을 많이 해주지는 않지만, 독립적인 경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준다든지, 정말 힘들 때는 도와주는 정도로 부모가 지원해 주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샌드위치세대인 50~60대가 100세 사회를 맞이하여 감당해야할 삶의 부담, 그리고 그러한 세대를 부모로 둔 젊은 30대가 100세 사회를 맞이하여 감당해야 삶의 부담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100세 사회 가족의 현실인 것이다. 이는 100세 사회 가족정책의 대상을 샌드위치세대인 베이비붐세대만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 생애적으로 100세 사회에 대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부모자녀관계의 변화 전망을 보더라도 100세 사회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자녀로부터의 지원은 감소할 것이라 전망하는 반면, 유산상속이나 손자녀 돌보기 등 부모로서의 역할은 일부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설문조사와 FGI 결과 발견되었는데, 이는 성인자녀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독립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사회구조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부모들의 불안감 표출이라 해석된다. 특히 여성들의 인터뷰 내용 속에서 자녀에 대한 지원의 한 형태로 손자녀 돌봐주기가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졌는데, 손자녀 돌봐주기에 대한 입장은 세 가지로 나뉘어, 자녀들이 맞벌이를 할 경우에는 손자녀를 조부모가 돌봐주어야 한다는 입장, 부모가 직접 키우고 불가피한 상황이나 힘들 때 조부모가 가끔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식은 부모가 직접 키워야한다는 보수적인 입장으로 대별되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가족이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가치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세 가지 입장 모두 부모세대에 의존하지 않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이 가족정책의 숙원사업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4) 가족돌봄기능의 약화

가족내 가족원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배우자, 자녀, 시설에 대한 의존도를 분석

해보면, 설문조사와 FGI 결과 모두에서 가족 내에서는 자녀보다는 배우자에게 의존하고, 상황이 악화되어 가족 내에서 해소할 수 없게 되면 시설에 의존하겠다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요양원 같은 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마음 내키는 선택은 아니고 여전히 가족에 대한 의존과 기대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여성들보다 더욱 강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싫든 좋은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지역사회시설에 대한 요구가 컸다. 구체적으로는 저렴한 가격의 실버타운 보편화, 노인 공동쉼터 조성 등의 제안이 있었다. 이처럼 100세 사회에는 가족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나 시설이용 의존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향후 가족정책의 대상이 가족이라는 테두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확대되어야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 내 가족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의 외연을 넓혀야 하겠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에서 돌봄이 필요할 경우 가족보다는 전문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특별히 아프지 않아도 실버타운 등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의 기본 단위로서 가족의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가족기능을 보완하고 지지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보다 더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 100세 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가족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 개발이 가족정책의 과제로 부각된다.

5) 새로운 가족생활양식의 출현

100세 사회 새로운 거주형태로 가족이나 시설이 아닌 대안적인 생활방식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원룸에서의 독립적 생활과 친구끼리의 공동체 생활이 그것이다. 원룸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함께 어울리는 '따로 또 같이'방식의 사례, 마음이 맞는 친구와 함께 가족처럼 지내는 '멋쟁이 할머니'의 사례가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고려대상이 되었다. 특히 노인1인가구의 비중(65세 이상 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이 2035년 38%에 달함)이 점차 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유사가족형태의 공동체적 생활양식이 다양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사가족형태에 대한 지원은 100세시대 가족정책의 중요한 정책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노인들이 만나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공간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문화센터 등에서 노인들을 위한 취미교실이나, 노인수준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 개발, 노인이 되기 전에 부부가 함께하는 노후여가생활 설계의 필요성까지 제기되었다. 우리보다 인구고령화의 경험을 빨리한 일본의 경우, '여가력(餘暇歷)'의 개념을 통해 청장년기 여가가 노년기 여가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생애단계별 여가경력(leisure career)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여가력' 관점은 100세 사회를 전생애적 관점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개념이다. 특히 100세 사회 여가는 창조적 생산성, 통합성, 사회적 생산성, 세분화의 방향으로 논의되는 바(윤소영, 2011),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루어야 한다.

6) 일자리와 소일거리에 대한 요구

100세 사회 가족생활 전망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구로 제기되는 것이 바로 일자리, 소일거리에 대한 것이었다. 모든 인터뷰에서 노후의 일자리 또는 소일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었다. 노후생활의 경제적 원천으로서 일자리의 의미와 생활의 즐거움, 활력의 의미로서 소일거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100세를 살게 되니까 일자리가 더욱 중요해지기도 하였지만, 100세를 살기 위해서라도 일자리가 꼭 필요한 것이다. 인터뷰를 통해 79세에도 봉사를 다니시며 갈 곳이 있어 즐거워하는 어머니의 사례, 밖으로 돌아다녀야 잡념이 없어 오래 산다는 아버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는 100세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다. 노인에게 있어 일의 의미가 70세를 전후로 달라지는데, 이는 노인이 더 이상 하나의 집단으로 동일한 특성을 지닌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노인의 연령별, 소득계층별 특성에 적합한 일거리를 마련하는 것이 100세 사회 가족생활의 기본이 되어야한다.

7) 가족생활교육 필요성 강화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100세 사회 가족생활교육이 더욱 중요한 가족정책의 과제가 될 것이라 전망된다. 특히, FGI 여성 집단에서 모두 동일하게 남성교육의 필요성이 강하게 드러났다. 부인이 없으면 밥도 못해 먹고 굶는 남성들에게 100세 사회는 상상하기 힘든 현실이다. 내 아들이 최고인 부모님 밑에서 귀하게 자란 남성들이 결혼해서 부인이 해준 밥만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퇴를 맞이하게 되면, 그야말로 자립능력이 제로인 무능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스스로 밥도 못 챙겨 먹는, 항상 누군가에게 자신의 먹거리를 의존해야하는 상황은 100세를 전망하고 버텨내기 힘든 조건이다. 그래서 모든 부인들은 무능한 남편들의 자립적 생활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남편들은 100세 사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가사도우미'제도를 언급하고 있다. 100세를 사는 남성들에게 자조적인 생활능력 향상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즉, 특히 그동안 가정내 역할 부재로 소외되었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자기 돌봄 및 배우자 돌봄에 필요한 생활능력향상 프로그램, 부부관계회복 프로그램 등 특화된 가족정책이 요구된다.

한편 100세 사회 가족생활을 전망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부부교육,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강하게 제기되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그동안의 가족생활 경험을 토대로, 부부됨, 부모됨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고 느끼고 있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길어진 가족생활주기를 생각하면 가족 형성 초기부터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를 건강하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 것이다. 이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100세 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족생활교육 정책이 요구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100세 변화하는 가족생활에 대비하여 새로운 가족상을 이해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가족생활교육이 필요하다. 예비부부교육,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부모자녀관계 정립을 위한 가족교육, 노인준비교육 등 생애주기에 걸친 다양한 형태의 가족생활교육을 통해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강홍렬・장혜경・김혜영・김영란・최민영・전미경・정은증・원영희・이현희・한정란・장은정・김미숙・장화경・홍미・최은영・성은수・유호선・이선형・임인숙・김수영・최은정・이동주・윤홍식・조막래・윤성호(2006). 정보화로 인한 가족관계와 가족역할의 미래변화 총괄보고서: 가족기능 변화와 미래 가족 전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03-01.

김동배・박서영・김상범(2010).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족수발자의 우울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여가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집단 간 비교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3), 117-135.

김영란(2007). 가족 돌봄자의 노인 돌봄 노동시간 및 돌봄 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여성연구, 72, 31-72.

김용하(2011).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과 사회적 과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제 16차 추계 학술대회자료집.

김용하(2011).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법.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noff2010&logNo=128233748&parentCategoryNo=80&viewDate=&currentPage=1&listtype=0

김은정・이신영(2010). 노인의 가족유형별 돌봄서비스 이용의향에 관한 연구. 가족과문화, 22(2), 1-30.

김혜경(2011). 노인돌봄: 노인돌봄의 경험과 윤리: 좋은 돌봄을 위하여. 양서원.

대한민국정부(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5. 대한민국정부

박상철・최성재・곽충실(2009). 베이비 붐 세대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정책수립 방향연구. 보건복지가족부.

박영란(2007). 돌봄 노동 여성의 욕구와 노인요양보장 정책. 사회보장연구, 23(1), 27-56.

보건복지부(2011).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보건복지부(2012).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석재은(2009). 노인돌봄 공적재가서비스 이용에 따른 노인과 가족 간 관계변화에 대한 사례연구. 가족과문화, 21(1), 29-61.

석재은(2009). 세대별 노후부양관의 차이와 영향 요인. 보건사회연구, 29(1), 163-191.

신경아(2010). 노인 돌봄 내러티브에 나타난 단절과 소통의 가능성. 가족과문화, 22(4), 63-94.

안현선・김효민・안진경・김양희(2009). 중년기 여성의 노후준비도와 성공적 노후에 대한 인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3(3), 137-155.

여성가족부(2010). 제2차 가족실태조사.

옥선화・장경섭・최연실・성미애・진미정・이재림・강은영(2011). 가족정책 기초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2011-56.

윤소영(2011). 100세 시대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방안, 100세 시대 종합 Conference “역동적인 100세 사회 어떻게 만들어야하나”, 기획재정부・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삼식(2011). 인생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성호(2012). 2030 메가트렌드 전망과 대응.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 전망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공동주최. 미리 가보는 2030년 여성・가족의 미래.
이소정(2011).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100세 시대 종합 Conference “역동적인 100세 사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기획재정부・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수영(2011).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100세 시대 종합 Conference “역동적인 100세 사회 어떻게 만들어야하나”, 기획재정부・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장지연・신동균・신경아・이혜정(2008). 중고령자 근로생애사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장혜경・김영란・최인희(2011). 100세 투자사회 대비 가족정책 과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9.
장혜경・김은지・김영란・김혜영・정재훈(2011).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5.
장혜경(2012). 2030 한국의 가족: 가족 변화 전망과 미래 가족 시나리오.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 전망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공동주최. 미리 가보는 2030년 여성・가족의 미래.
전홍택・박명호・윤석명・송양민・정형선・방하남・한주형(2011). 100세 시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휴먼뉴딜 종합연구 총서 11-05-0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경희・이소정・이윤경・김수봉・선우덕・오영희・김경래・박보미・유혜영・이은진(2010).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2004). 인구고령화와 연령통합사회, 사회연구 7.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정영금・송혜림・박정윤(2010). 가정건강성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연구 보고서.
정호성・강성원・문외솔・박준・손민중・이찬영・이은미・이민훈・박번순(2010).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최성재(2011).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노동시장 및 사회참여.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 고령사회 포럼, 3-23
최정신・조재순(2006).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와 생활만족도의 성별 차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17-128.
한경혜・이정화(2012). 지금, 중년을 말할 때. (주)교문사.
한경혜・최현자・은기수・이정화・주소현・김주현(2011). 한국 베이비부머들의 삶의 지평. MetLife Mature Market Institute.
Bengtson, V. L., Rosenthal, C., & Burthon, L.(1990). Families and aging: Diversity and heterogeneity. In Binstock, R. H. & Geroge, L. K.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Academic Press, New York, 263-87.
OECD International Futures Programme(2008). The future of the family to 2030: A scoping report.
The R.O.C. laws & Regulations database(2011). Family Education Law, Ministry of Justice. http://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H0080050

토 론

백세사회 가족생활전망과 가족정책에의 함의점

김 소 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가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가족생활과 관계의 재설계를 요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백세사회 가족생활전망과 가족정책에의 함의점' 이라는 연구는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적절한 해답을 제시해줄 수 있는 기초연구로서 큰 의의를 갖는다. 특히 발표논문에서도 밝혔듯이 거시적 전망보다 일반인들의 주관적 인식과 전망에 근거해 "100세사회의 가족생활 변화가 가족구성원들과 우리들의 일상적 상호작용에 미칠 미시적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적 과제를 도출했다는 점은 연구의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발표논문은 가족생활을 전망함에 있어 가족내적인 자원과 관계뿐 아니라 앞으로의 가족생활에서 더욱 중요한 영역이 될 지역사회 자원・관계를 포함하였다. 설문조사 및 FGI 결과 지역사회 시설 및 이웃과의 관계는 100세 사회에 중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따로 또 같이'와 같은 대안적 생활양식에 대한 희구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가족생활과 관계의 재정립, 가족정책의 범위 확장 등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가족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조성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었다.

이러한 연구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운 점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 결과분석이 주로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 자체도 의미가 있으나 '관계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 두 차원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두 측면을 교차해 어떤 관계, 어떤 기능의 변화에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인지를 밝혀낸다면 100세 사회 가족생활의 재설계와 관련한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참여자들의 인식과 전망을 보다 심층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고 하나 제시된 결과의 대부분은 설문조사에서 이미 나타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질적연구방법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한다면 흥미롭고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제시된 인식, 요구, 전망의 관계를 구조화해보거나 주요한 축을 찾아내 참여자들을 유형화한 후 유형별로 인식, 요구, 전망들이 어떻게 다른지, 무엇으로부터 그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준다면 대상별로 필요한 정책적 지원 제시도 가능하다. 셋째, 결론 부분에서 설문조사와 집단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가족생활

을 전망하고, 가족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100세 사회 패러다임의 전환, 새로운 가족생활양식 등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 가족관계, 기능의 재정립, 필요한 사회적 지원 등이 그것이다. 내용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가족돌봄기능의 사회화, 노인들을 위한 공간 조성, 일자리 제공, 가족생활교육 실시 등은 이미 가족정책 또는 노인관련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정책들의 한계, 정책들 사이의 관계 등을 짚어내면서 향후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